

적격심사 공사 기술자 보유기준 깎아내린다

입찰서 마감 전까지 등록기준 갖춰야
소급신고 차단... 중소기업 부담 우려도

앞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해야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기술자 보유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9일 일시적 기술자 보유(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입찰시장 혼란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

을 포함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15일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격심사 시 일시적 기술자 보유기준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라도 4대보험 관련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기술자 보유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신고한 기술자 자격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가 일단 입찰부터 치른 후 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을 때만 소급신고를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일종의 편법적 행위가 차단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1순위자 및 낙찰자 자격에 대한 논란 등에 따른 입찰시장 교란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수주난과 더불어 낙찰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실상 상시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봉승권기자 skbong@

시공경험 인정 ‘최근 3년→5년’으로 확대

뉴스 돋보기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안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는 시공경험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시공경험 인정기간 확대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관련 규정 개정 및 입찰공고 등을 통해 시행 중인 것으로, 이번 기준개정은 조문정리 정도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추정가격 10억~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신설업체 시공실적 만점기준 완화조치 역시 현재 시행 중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골자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된 신설업체에 대해 최근 5년간 해당 업종 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분의1배 이상 1배 미만일 때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축소하는 것으로, 신규업체의 공공시장 조달문턱은 다소나마 낮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실적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 1배에서 2분의1배로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은 이 밖에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규정도 명확히 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4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평가등급과 더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도 경영상태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40주년

“건설업 협력 강화... 동반성장길 함께 모색하자”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40주년, 건설업계 협력 강화로 양국 건설산업동반성장 함께 찾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지난 7일 일본 그랜드프린스 뉴다카나와호텔에서 개최된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제26차 총회에 참가했다.

대한건설협회와 일본 해외건설협회가 1976년 창립한 ‘한·일 건설협력협의회’는 한·일 양국 건설업계 간 유일한 민간 협력기구다. 한·일 양국이 2년마다 교차로 총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 40년째로 도쿄에서 일본해외건설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총회의 한국 대표단으로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위원장)과 건설업계 CEO, 대우·롯데·한화 등 대형건설사 해외담당임원들이 참가했다. 일본 측 대표단은 오바야시구미(大林組)사의 시라이시 토루 회장(위원장)과 타이세이, 후지타, 하자

건협, 日서 열린 26차 총회 참석... 해외진출 동향 등 논의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왼쪽)과 시라이시 토루 일본 해외건설협회장이 지난 7일 일본 도쿄 그랜드프린스 뉴다카나와호텔에서 열린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제26차 총회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 가지마, 다케나카, 시미즈, 쓰치야 등 일본 대형건설사의 해외 담당 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주제로 ‘한·일 국내건설시장 및 해외진출 동향’에 대해 이흥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과 마사토 오츠보 일본 해외건설협회 상무이사가 발표했다. 이어 제2주제에

서는 ‘일본 노동안전위생 관리 시스템과 ISO 45001 개발동향’(스가와라 히로시 건설업노동재해예방협회)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이종훈 한화건설 상무)에 대해 주제 발표 및 의견교환이 있었다. 총회가 끝난 후 한국대표단은 사이타마현(埼玉縣) 동부에 건설된

세계 최대 지하하천 지하방수로를 방문했다.

시라이시 토루 일본 해외건설협회장은 “이번 주제발표는 국가 유지 발전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한·일 건설협력협의회가 40년째 교류를 지속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양국 건설인의 우호관계가 한층 깊어지고, 양국 건설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고민은 다르지 않다. 이번 총회는 협력관계를 재정립하고, 미래성장 동력과 동반성장을 논의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